

노 대통령 “경제에 묻혔던 주제에 관심 돌릴 때”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국민 상실감 회복, 실질적 진전 필요” 강조

이기호 (actsky@dailyseop.com)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금은 미디어나 국민들을 보면 경제문제에 그렇게 매몰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이제 한숨 돌려서 경제에 묻혀 있던 주제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김정욱 위원을 비롯한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진촬영에 임한 뒤, 충무실로 이동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항상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게 지속가능위 활동”이라고 말하고, “일하기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사명감이 있어 위원회에 참여해 주셨다”며 위원들을 격려했다. 또 “별로 생색나지도 않은 자리인데 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이 4번째 위원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갈등관리만 해서 너무 고생했다”며 “올해는 본연의 일을 하도록 개편하면서 그전보다는 일하는 환경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관리란 그 사회 문화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 건데 좀 무리를 했다”고 평하고, “위원장이 고생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김상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경제와 관련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그는 “사회의 가장 긴박한 주제가 경제이고 위기로 인식하고 있어 경제위기란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다”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부닥치는 주제는 밀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경제약화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며 ‘경제에 묻혀 있던 주제’에 관심을 돌릴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몇 가지 상징적 사건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징적인 일들은 (한 고비) 넘어갔으나 아직 관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상실감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진전도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저도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새롭게 출범한 제4기 지속가능위는 ‘정부 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라는 활동목표 아래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의 22개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점검 △거버넌스(통치)를 통한 정책자문 및 합의기능 활성화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위는 지난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 지속가능위원회(NCSD) 설치를 요청한 UN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지난 2000년 1기 출범이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대통령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해 왔다.

지속가능위는 참여정부 들어 3기 위원회부터 국정과제위원회로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됐다.